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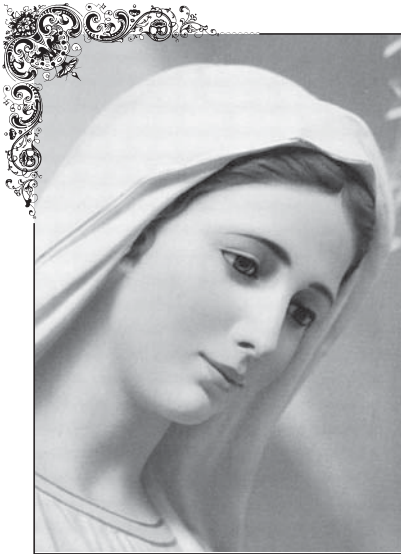
MEDUCORJE

# 평화의 모후



2014. 7 / 8 제 69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너희가 자신을 열고 회개 할 수 있도록 징표를 주고 계시는 이 시기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은총임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느님께서 돌아 오너라. 그리고 기도하여라.

그 기도가 너희의 마음과, 가족과, 공동체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하느님의 뜻과 너희들 각자에 대한 그분의 계획으로 나날이 더 자신을 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비추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성인성녀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4년 7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 목차

- 4 **당신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슬라브코 바리바리치 신부
- 8 **마음을 다한 기도는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 해줍니다.**  
마음을 다한 미사 (2)
- 11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스테파노 곱비 신부
- 1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저희 집에 와 주세요!**  
2014년 7월 28일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특별한 발현
- 13 **사제들의 봉헌이란 무엇일까 ...**  
상처받은 교회를 치유하는 길 (2)
- 19 **그들의 절망을 밝히는 위로의 불빛이 될 수만 있다면...**  
복녀 마더 데레사
- 20 **성모님의 탄생에 지옥은 공포에 떨었다.**  
피에르 철리앙 에이마르 신부
- 23 **이혼이 없는 마을 메주고리에**  
임마누엘 수녀
- 25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이들은 누구일까...**  
목격증인 미리아나 쓸도
- 29 **하늘에서 온 기쁜 소식 15기도의 은총**  
김호영 아브라함
- 31 **하느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창호 바오로
- 34 **평화의 모후 선교회 사명과 후원안내**
- 35 **후원회원 명단**

평화의 모후 선교회 홈 페이지  
[www.qpmm.org](http://www.qpmm.org)를 방문하시면  
성모님의 매월 메시지와 2001년 부터  
발행된 '평화의 모후' 소식지 및  
2014년 성지 순례 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원을 위하여...
- 선교회 지도 신부님과 모든 사제들을 위하여...
- 박창득 몬시뇰의 건강회복을 감사 드립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회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성모님, ○○○의 선교사명과 두 자녀들을 봉헌합니다.
- 세월호 희생자들과 고통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 주님,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봉헌합니다
- 가정의 평화와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 ○○○가 암 수술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성모님,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 북한동포들의 굶주림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해 주소서
- 냉담중인 큰딸과 가족의 영적 성장과 주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 암진단을 받은 남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자녀들이 마음의 고통을 잊고 주님의 길을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 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성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 아들의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술을 절제하도록 도와 주소서
- 김시몬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족과 이웃들을 위한 기도지향을 위하여...
- 가족들이 평화와 교회의 거룩한 봉사자들이 되도록 인도 하소서.
- 성모님, 두 아들들과 그 자녀들을 봉헌하오니 모든 위험에서 지켜 주소서.
- 벤쿠버 성 대건 안드레아 성당 평화의 모후 기도회 회원들을 위하여...
- 성모님, 저를 통해서 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총 전구해 주소서.
- 성모님, 언니와 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동생 부부의 변화된 삶과 영육간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기 바라며...
- 1977년에 행방불명된 큰오빠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티없으신 성모성심께 기도지향을 봉헌하오며, 언니를 메주고리예로 불러주소서.
- 엄마의 건강 회복과 아버지의 개종, 동생과 가족들이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두 자녀들, 남편, 시댁식구들의 온유한 마음과 하느님의 자녀되는 은총 주시길 바랍니다.
- ○○를 미워만 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진심으로 ○○를 어머니께 맡깁니다..
- 아들이 홈레스 생활을 청산하고 영적 치유받아 영혼이 구원될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 ○○○의 사제성소, 가족들이 가톨릭신앙과 영육간 건강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저희 가족이 한곳에 모여 기도하고, 함께 미사드릴 수 있는 성가정의 믿음을 청합니다.
- 티없으신 성모님께 저의 가정을 봉헌하며 가족들의 회개와 화해를 청합니다.
- 의식 불명인 남편○○○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7월 메주고리예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모든 미사와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때 봉헌해드립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증인들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드립니다.

## 당신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1999년 11월 25일의 성모님 메시지와 묵상

슬라브코 바리바리치 신부(O.F.M.)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이 은총의 시기에, 십자가가 너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랑과 일치이 이정표가 되기 바란다. 어린 자녀들아, 그러므로 평화의 창조주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태어나시도록, 이 시기에 특별히 기도하여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너희는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삶 안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이달의 메시지를 묵상하기 전에 먼저 지난 달의 성모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것은, 지금이 은총의 시기임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신 아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에는 부르심이 무척 자주 나타나는데, 특히 기도에 관한 것이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기적을 잊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따라서 의탁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그 크심을 찬미하나이다.' 마리아는, 하느님이 자비로우시고 충실하시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드러내신 바를 지키시고,



비천한 이들을 높이시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시며, 권능을 떨치시어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신 분임을 잊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분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않았기에 '예' 하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충실하심을 발견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지금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그것을 간절히 찾고 우리 자신들의 마니피캇을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평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끊임 없이 베풀어주시는 선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서 멈춰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좋았던 것은 쉽게 잊어버리면서 무겁고 힘들었던 역경과 상처는 오래 기억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자유로울 때, 우리는 선한 것을 더 쉽게 기억하고 나뻐던 것은 더 빨리 잊을 수 있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느님과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 합쳐질 때,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니다. 이 은총의 시간은 오로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제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항구히 자비하시며, 그 은총의 시간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불행하게도 우리 자신의 방법과 사고를 모두 소진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야 그것을 깨닫고, 뒤돌아서 서서 회개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를 위한 모든 좋은 것이 마련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통해 기도그룹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어머니시여, 저희를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성모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대답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저희를 잊지 말아달라"고 청하는 기도 보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답에 더 큰 뜻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의 시기는, 메주고리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은총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세 번씩이나 반복하신 성모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적인 귀에 항상 메아리 쳐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이번 메시지는 이번 대림절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첫눈에 아셨을 겁니다. 즉 성탄절을 잘 준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나는,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기도에 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므로, 여기서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사'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은총의 시기에, 십자가가 너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랑과 일치이 이정표가 되기 바란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정표로 받아들이기를 원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한 방향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천국을 향하는 수직축과 세상, 즉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수평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축과 수평봉이 만나는 모양은 일치를 나타내며, 이 교차점은 바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도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개의 방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만이 우리는 참 사랑과 일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직축과 수평봉의 교차점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느님과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 합쳐질 때,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죄란 이 교차점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아 균형이 깨지고 그리하여 우리는 참 평화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수직축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치게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사람 또는 물질적인 것에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되고, 나쁜 습관으로 인하여 중심에서 벗어나 결국 인간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게 됩니다. 회개란 우리 마음 안에서 수직축과 수평봉이 다시 교차점을 이루게 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시기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만 사랑과 일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사랑과 일치를 찾겠다고 한다면 하느님과 좋은 관계, 더 나아가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잃게 되고, 결국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단식, 특히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내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느님과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새롭게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창조주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태어나시도록, 이 시기에 특별히 기도하여라.

이 문장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여정의 핵심이며 목적



## 무엇이 먼저입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기쁨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까?

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을 때, 비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사랑과 일치를 위한 이정표로 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평화의 창조주, 즉 평화 그 자체를 간직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회개를 위한 새로운 자극제인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묵상의 시기를 이렇게 보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사도가 될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너희는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이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평화의 전도사 또는 사도가 되라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이 바로 성모님의 발현이 시작된 이래 줄곧 그분의 주된 바램이었다는 것 - 우리 스스로가 평화를 간직해야 그 평화를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애써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파괴된 가정, 남녀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의 갈등 전 세계 - 전쟁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사람들간의 갈등 등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해집니다!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은 그 뜻이 무척 심오하여 반드시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여라.**

이 문장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대등하게 중요한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려면,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즉,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간에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 프로그램의 첫째 부분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전적으로 우리에게

게 달려있는 몇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함을 아주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결심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어디서, 얼마나 기도 드릴지, 그리고 항상 그렇게 기도할 것임을 확고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내적 감정과 상관없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충성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 하여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결국 기도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느님과 의 만남이며, 하느님은 사랑과 평화와 빛의 하느님이시며,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느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며, 그 기쁨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려면, 설사 지금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도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무엇이 먼저입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기쁨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까?" 기쁨이 있다면 기도는 쉬워지겠지요. 하지만 아직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결심과 충성심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순례자들의 많은 체험을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매달 2일에 마리아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아나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신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이 은총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 질문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절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아주 갑작스럽게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도 '초기 응급처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 후 계속해서 기도하면 더욱 큰 기도의 기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진실된 충성심을 유지하면, 사막의 시간을 -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것이 메마르고 쿨쿨하게 느껴지고 오로지 건조함 밖

## 십자가의 수평봉만을 따르며 오로지 이웃과 자신들과 물질세계만을 쫓느라 당신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을 축복하소서.

에는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조차 기도하기에 무척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더욱 이타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평화만이 오로지 좋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쉽게 있을 텐데, 이는 좀 이기적인 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벨라의 성녀 테레사를 보면, 그녀는 18년간 사막에서 기도의 삶을 보냄으로써 기도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도 진실로 함께 기도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충성심을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생활은 진정으로 성숙하여, 더욱 깊어지고 결국은 하느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때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긍정적 경험을 얻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곧 맞게 되는 대회년이 이번 대림절과 함께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메시지를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대회년 전체 기간 동안의 기도 프로그램으로 진정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황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제3의 밀레니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계속 가는데 필요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마리아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세주의나 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은 적절치 않으며, 특히 마리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곳 메주고리에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여러분들께 진정 환희에 차고 보람된 성탄절 축제가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잘 따르면, 환희에 찬 성탄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대회년을 시작하는 이 새로운 시기에, 2000년전 당신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보내주신

당신 아드님의 이름으로, 저희에게 기도의 정신을 주시고, 빛과 용기와 사랑과 또한 십자가를 우리의 이정표로 삼는 믿음을 주시고, 당신을 향한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당신을 향한 사랑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당신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십자가의 수평봉만을 따르며 오로지 이웃과 자신들과 물질세계만을 쫓느라 당신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을 축복하소서. 마약과 알코올 또는 다른 것에 의존하여 십자가의 수직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편향된 삶을 사는 모든 이를 축복하셔서, 이 은총의 시기에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께 돌아오는 은총을 받게 해주소서. 또한 모든 젊은이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평화의 창조주 당신 아드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시기에 평화를 얻고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목격증인들과 이곳 교회와 순례자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마리아의 가르침에 충실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마리아를 저희에 보내주심으로써 이 시기에 특히 우리를 돌보시는 당신이 좋은 아버지이심을 알게하소서. 병자와 고통과 슬픔을 겪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용기를 잃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신념과 신앙과 당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들 모두에게 지금이 진정한 평화의 시기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M**



# 마음을 다한 기도는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치유 해줍니다.

슬라브코 바리바리치 신부(O.F.M.) / 번역 : 남기옥



##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

성모님께서 미사에 참여 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라고 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엘레나 바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미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신자생활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대에서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이 미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미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집에 남아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성모님께서 미사에 대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면서 많은 신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거룩한 미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사제의 충고가 매우 유익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뭐, 다 그렇고 그렇지, 이보다 나을게 뭐가 있담' 이라는 식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서는 거룩한 미사에서 그리스도와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그 만남 준비에 대한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서 주님과 사랑으로 만나고 거룩하게 봉헌하기 위해 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준비해야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 현대 신앙인의 상황

많은 신자들은 일주일 내내 단 주일에만 미사의 희생 제물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은 마음이 담긴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사 중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대 위에서 희생 되시며 빵의 형상 안에 현존하심으로서, 미사성제 속에서 당신을 내어 주십니다. 이 시간은 마음과 영혼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신비롭게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하느님'으로 빵과 포도주 안에 현존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는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좋은 만남이 되려면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고 상호적인 사랑에 먼저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가 없다면 좋은 만남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뵈기 위한 준비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의식적으로 선행을 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과의 협력을 통해 분명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이런 양심이 뒷받침되지 않거



나, 자신의 삶속에서 신자로서 생활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속에서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읽지 않은 상태로 서둘러서 달려간 주일미사는, 어떤 기쁨보다는 실망을 먼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느님 안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미사가 봉헌되는 제대 앞에서 무감각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방인으로 남아있겠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생동안 규칙적으로 미사에 참여한다해도 이런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한다면 변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자신들이 미사에 참여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미사의 희생제물에서 오는 은총의 결실은 정말 미미할 수도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하는 의무축일이고 '미사 참여'로 신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사고방식은 바리사이파 같은 행동에서 기인합니다.

### 왜 미사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되물어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만나고 뵙기 위해 나는 미사전이나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현실은 많은 신자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미사 시작 직전에 와서 몸만 참여하고 가는 이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사 예식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느끼지 못하고 항상 미사와 사제의 강론, 성가 혹은 다른 모든 것들이 지루하게만 느껴질 위험도 있습니다. 당연히 거룩한 미사의 의미가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파견 강복이 끝나자 바쁘게 성당을 나갑니다. 그러나 성당을 나가면 친구들과 만나고 이런 저런 말을 할 시간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그날 주신 복음 말씀과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일은 정말 하늘에 별 따기로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허둥지둥, 단지 신자로서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미사에 참석한다면, 신앙인으로서 그 사람이 미사에서 받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왜 미사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야 합



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해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알아냈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다른 사제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방문하라고 격려합니다. 특별히 저는 부모들에게 자주 권했는데, 그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실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사제로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과 무엇을 할까? 미사거행을 어떻게 구성할까? 저 자신을 위한 미사 준비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준비 시간은 어느 정도 할애해야 하는가? 등등의 질문입니다.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신자들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에 앞서 사제로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평화와 사랑과 정의, 자비와 용서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극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거룩한 미사시간에 기쁜 만남, 모두가 그분 앞에서 서로를 위한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향해 느끼는 진정한 감사가 존재할 때, 우리가 염원하는 것들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냉담 신자들이나 비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스스로 미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신자들,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사람들의 진지한 모습을 본다면,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냉담했던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 전례 중에 진정으로 변화되어 상처를 주고 받았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사의 은총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냉담 신자들도 하느님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 혹은 주시는 것을 받아 들이게

## "왜 성령께 드리는 기도를 중단했느냐? 다시 그분께 드리는 기도를 시작하여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은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용서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용서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자주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구하는 척,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증오와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선 이 있는 공동체를 받아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냉담 을 하는 것입니다.

### 미사전에 성령께 은총을 구하는 기도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미사를 참례하기 전에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 일과 혹은 한 주간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진지한 만남을 위한 미사 준비를 위해 의식적으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에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 기쁨과 고통, 실수와 죄등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만남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메주고리에에서는 매일 저녁 미사참례를 위한 준비를 진솔하게 합니다. 먼저, 로사리오기도와 성령송가를 봉헌하고 성모 호칭기도를 노래로 바칩니다. 메주고리에에서는 이러한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전 세계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모르더라도 함께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로사리오 기도과 반복되는 간단한 성가들, 함께 드리는 기도들은 그 자체로써, 일과 중의 실수나 잘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회개하여 서서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마음을 집중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며,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부터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로사리오 기도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순수하게 일치할 수 있게 하며, 그 속에서 환희와 고통과 영광 안에서 신앙의 모범이신 그분들을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메주고리에에서는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미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당에 미리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도 미사 준비는 꼭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거나 걸어갈 때, 혹은 친구들이나 가족 중의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때, 전례적인 만남을 현실적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은 체제 두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체 속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복음말씀 묵상등은 개별적인 결심과 은총을 위한 기도들입니다. 또한 미사전에 성령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자신과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와 참석한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내적으로 밝아지고 자신과 하느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참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한 기도는 개별적인 죄로 인한 영혼 안에 있는 상처들, 타인에게 받은 상처들, 우리가 타인에게 저지른 잘못과 상처들을 치유하게 해줍니다.

### 미사 전 성령께 드리는 기도

1983년, 원죄없이 잉태되신 어머니 축일을 위해 9일기도를 시작하고 있을 때, 내적으로 말씀의 은사를 받는 엘레나 바실리가 본당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성모님께서 미사 전에 성령께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전하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믿었고, 실천하며 함께 성령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모님께서 기도로 초대하시는 그 메시지가 단지 9일기도 중에만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9일 기도가 끝났을 때 잊어 버렸습니다. 1984년 1월 2일, 엘레나 바실리는 성모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왜 성령께 드리는 기도를 중단했느냐? 성령께서 너희 위에 내리시도록 일 년 내내 그 기도를 하라고 내가 청하지 않았느냐? 다시 그분께 드리는 기도를 시작하여라." 그 때부터 성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저녁 미사 전에 성령송가를 노래로 드리곤 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마리아 파블로비치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 기도에 대해 이렇게 격려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밤 나는 너희가, 이 9일기도 동안 너희 가정과 본당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도록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다. 기도하여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 선물을 받고서 이 지상에서 생을 마치는 날까지 하느님을 찬양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4년 6월 2일). **M**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594 / 1997년 5월 8일, 파티마(포르투갈)  
마리아사제운동 25주년 기념일

스테파노 곱비 신부

'마리아 사제운동' 탄생 25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네가 나를 공경하며 바치는 나의 이 운동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바로 여기, 나의 파티마 '발현 소성당'에서, 내 티없는 성심의 사랑과 자비의 위대한 계획을 너의 마음속에 계시했으니, 작고 가련한 아들인 너를 뽑아,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지금까지 세계 전역으로 너를 이끄는 나를 따라, 피로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수 없이 겪으면서 오대륙의 여러 나라들을 몇 번이나 순방하곤 했다. 이제 나의 계획은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내가 '마리아 사제운동'의 사제들과 함께 모든 자녀들을 불러, 내 티없는 성심에 자신들을 봉헌하도록 해왔으니 말이다.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너희 천상 엄마의 자비로운 활동으로 말미암아 도처에서 실현되고 있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 내 티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요청해 왔으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고치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요, 인류를 하느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길로 이끌기 위한 안전한 수단인 까닭이다. 내가 그토록 바라며 당부해 온 봉헌은 이제, '마리아 사제운동'을 통해 세상 어디서나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몸소



내 작은 이들의 군대를 기를 수 있게 되었고, 이 군대로써 나의 가장 큰 승리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나와 함께, 나를 통해 바치는 기도 안에 너희를 모아들이려고 요청한 '다락방 모임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가는 가운데 파티마 메시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나는 내 작은 아들인 네가 나에게 대한 공경으로 바치는 이 다락방들을, 곧 도처의 사제들과 신자들, 어린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특히 가정들 사이에 확장되기에 이른 모든 다락방들을 매우 기쁘게 네 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다락방들에 의해 너희는 많은 가련한 죄인들, 특히 하느님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얻어줄 수 있다. 이 다락방들에 의해 너희는 고통스러운 정화의 대재난기를 단축시키려고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번 개입해 온 너희 천상 엄마에게 전구와 보상의 큰 힘을 줄 수 있다. 이 다락방들에 의해 너희는 '두 번째 성령강림'의 은혜를 받고 있으며,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티없는 성심이 새로운 영적 다락방이 되었고, 여기서 하느님의 그 놀라운 일이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너희의 서약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니, 이는 교황과 그와 결합되어 있는 교회와의 일치 및 사랑과 기도의 서약이다. 나는 이 곳 파티마에서 어린이들에게 발현하여 앞으로 교황이 겪을 고통과 반대와 유혈의 시련을 예언하며 환시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예언은 특히 나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실현되고 있다. 이 교황은 내 티없는 성심 안에서 양성을 받은 걸작품이다. 너희는 너희의 사랑과 기도의 서약으로 교황이 최대의 희생을 치를 때 그의 위로와 격려가 된다. 너희의 순종과 순명은 교황의 교도권을 어디서든지 충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 되고, 교황과의 일치는 내가 파티마에서 예고한 이 시대—갈수록 더 많이 가르쳐지고 확산되는 오류로 말미암아 수많은 내 자녀들이 믿음을 잃고 있는 시대에 너희로 하여금 확고하게 참 신앙에 머물러 있게 한다.

내가 이곳 파티마에서 25년 전에 '마리아 사제운동'을 일으킨 것은, 많은 이들이 이익을 제기하며 배척해 온 파티마 메시지가 너희 시대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성취는 위협과 타격을 받고 있는 내 자녀들인 너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 그 성취는 이토록 상처받고 십자가에 못박히고 있는 교회가, 고통스러운 유혈의 시련을 통해, 너희 천상 엄마처럼 흠도 주름도 없이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필요하다. 그 성취는 온 인류로 하여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주 하느님과 사랑의 충만한 친교를 맺을 새 시대를 살게 하는데 필요하다. 이제 나의 이 계획은 내 티없는 성심이 세상에서 승리함과 더불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내 작은 아들이, 내 교황과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내 운동의 주교들, 사제들, 신자들을 너와 함께 축복한다. 축복한다, 사랑과 기쁨으로, 또 내 말을 귀여겨듣고 나를 따르며 위로하고 찬미하는 너희 엄마로서의 고마운 정으로! **M**

(위의 내용은 "다락방 기도회" 창설자이신 스테파노 콤비 신부님에게 1973년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참고-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저희 집에 와 주세요!

2014년 7월 28일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특별한 발현

지난 주, 라디오 마리아 방송중이던 리비오 프란자가 신부는 최근 베로나 신학교에서 있었던 성모님 발현에 대하여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목격증인 마리아 파브로비치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다. 목격증인 마리아 파브로비치는 그 날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자신을 지나서 사제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여러 가족들이 있었던 첫줄에 있던 몸이 아픈 어린아이에게로 다가 가셨다고 한다.

성모님께서 자신을 지나치시는 것을 보고 놀란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나 성모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을 때, 성모님께서 어린 소녀를 안아주며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 그 어린아이는 성모님을 바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저희 집에 와 주세요! 제 마음에 오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마리아는 아이가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 아이가 그날 성모님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이 있었을 때 다른 이들과 같이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메주고리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성모님의 천사라고 불렀죠." 목격증인 마리아는 리비오 신부와 대화에서 2014년 7월 25일자 최근 성모님 메시지의 천사를 언급하였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성인 성녀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너희를 위해 전구하고 있다." **M**

<<http://crownofstars.blogspot.co.uk> 에서>

## 사제들의 봉헌이란 무엇일까 ... (68호에서 계속) 제 2 강론

스테파노 곱비 신부



아들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우리임에도 성모님이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 사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제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봉사자가 되고, 그리스도는 사제를 통해서 당신 모습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성화 시킵니다. 성모님은 그리스도와 갖는 이 특수한 관계 때문에 사제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세속주의라는 암적인 사상이 교회안에까지 들어온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많은 사제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성령 동료 사제여러분! 성모님은 그누구보다도 큰 사랑으로 사제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성모님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메시지 책에서 성모님은 사제들을 지극하게 사랑하는



살면서 이 세상의 봉사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사제라는 존재 전체를 죽여 버리는 암과 같아서 미국에서는 약 3만명이 넘는 사제들이 사제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모습으로 사제직에 남아 있는 이들은 복음에서 말하는 짙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성모님은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마리아 사제운동을 통하여 사제들을 도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위기에 처한 당신 아들들을 도와 주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입니다. 성모님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사제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당신이 어머니로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려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작은 어린아이 처럼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아무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탁하는 신뢰가 바로 사제가 성모님께 바칠 봉헌인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우리를 봉헌할 것을 원하십니다. 의지가 약해도, 혹은 죄인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라고 하십니다.

## 성모님은 우리가 사제다운 사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 모든 것은 당신의 것...

봉헌이란 무엇입니까? 사제생활을 성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영성적 차원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모성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 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의지 행위로서 마리아를 어머니로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제가 "나는 더 이상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성모님은 마치 두 손이 묶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모님께서 엄마 역할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제는 성모님이 말씀 하시더라도 듣지 않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면 먼저 그 분의 모성애를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처럼 모든 것을 의탁하고 느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제들이 주교님이나 교황님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님이 가진 문장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습니다. "Totus Tuus' 또투스 투스'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것은 곧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모님은 당신께 봉헌하는 사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쇄신시키시고 세계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봉헌해야 합니까? 봉헌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문을 가지고 봉헌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봉헌 후에 우리가 행한 그 봉헌을 삶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봉헌을 생활화하려면 우리는 하나의 여정의 길을 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성모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성모님에 의해서 변모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성모님과 마음의 친교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마리아 현존의 카리스마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인 성모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님께 봉헌된 사제는 성모님과 동행하면

서 사제적 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제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행복해하고 항상 곁에 계시기를 청하지요. 사제가 성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나는 성모님께 봉헌된 사제다."하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날 정말 많은 사제들이 성모님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제들은 사람들에게 비판 받을까 두려워서 성모상은 잘 보이도록 모셔 놓습니다만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봉헌의 첫째는 성모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모님도 함께 기도 해주십니다. 우리의 사도직은 성모님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모님께서 삶 속에 오셔서 균형과 질서를 세워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사제들은 평화의 표징들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격려가 되어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십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게 모셔 둘 때, 진심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고 사제의 길이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곧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원한 인호를 표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계는 성모님에 의해서 변모되는 삶입니다. 속담에,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할까요. 도둑놈과 다니면 같이 도둑질을 할 수 밖에 없고, 마약 중독자와 다니면 마약 중독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덕을 베푸는 자와 함께 하면 덕을 베풀게 될 것이고, 성모님을 모시면 성모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모님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모님의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내면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입니다. 외양으로는 성모님도 평범한 어머니이십니다. (...) 그분은 다른 어머니들처럼 집안을 청소하시고, 물을 길으시고, 성요셉과 아기 예수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장만하셨습니다. 티 없이 순결하시고 은총이 가득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셨지만 성모님의 그 모든 아름다움은 내적인 것에 있었습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은 때가 되었으며,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니다. 우리의 내면도 성모님과 같아야 합니다. (...) 연약한 우리는 유혹을 당하고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성모님께서서는 겸손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 그대로 놓아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변화를 주시어 더 깊은 영성적 차원으로 변모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첫 변화는 성모님의 정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처럼 대학은 못다녔어도 현명하시고 겸손하셨으며, 늘 하느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묵상하셨으며 간직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자세였기에 영보의 순간이 왔을 때 "예" 하고 대답할 준비가 갖추어졌던 것이고 모성의 뿌리가 있고 계시된 말씀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성모님은 성서의 말씀들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 속에 받아들였으며 그로 인해 말씀이 육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제들은 당연히 말씀에 맞들여야 합니다.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특히 복음 말씀을 사랑하고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서는 문 학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들어 있는 진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성서를 글자 그대로 삶으로 옮긴 복음이 되라고 말씀 하십니다. 성모님은 그리스도 말씀의 봉사자이며, 복음의 봉사자들인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 복음화를 심화하는 데는 신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자가 교도권에 순종할 때만 그렇습니다. (...) 성모님은 우리가 많은 학문을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사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대는 우리 사제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부정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이들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고백한 순교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순교자들처럼 용기를 가지고 오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삶을 바치는 사제가 됩시다! 교회는 오늘날

그러한 사제들을 필요로 하고 성모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사제들을 양성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자비의 섭리는 마리아의 성심을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 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선에 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이겠습니까? 이미 그것들은 그분의 자비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는 것은 단 한가지뿐이지요. "나를 사랑하였느냐?" 그렇게 밤새도록 물어보아도 아마 여러분은 "예"하고 대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열려있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양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바로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와 친밀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걷는다면 우리는 셋째 단계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는 정말로 하느님의 자비로서 가득 채워두고 싶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모님께서 다시 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자비의 섭리는 마리아의 성심을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성심에 봉헌한 사제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성모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표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모님께서 보다 큰 어떤 현시를 보여주기 위한 표정으로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모님이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그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온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서 붉은 용을 묶어 지옥에 처박아두기 위해서 성모님은 행동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이 일을 직접 아니하시고 당신 성심에 봉헌한 사제들과 신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메시지 책에서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은 때가 되었으며,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 우리는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룩한 사제가 되어야 합니다.

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바로 성모님을 바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나타내고 싶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 다음에는 이런 말이 계속됩니다. "너희의 눈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싶고,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너희의 손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을 돕고 싶고, 너희의 발로 내가 걷고 싶고, 너희의 몸으로 내가 고통을 받고 싶고, 너희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른 사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룩한 사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예고하신 그 계획에 따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승리자가 될 때, 그것을 직접 체험할 때, 사제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맛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께 "저를 당신의 사제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요.

**나의 어머니여,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변모시켜 주십시오."**

제 4 강론- 오늘은 마지막 묵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 번에 걸친 묵상에서 한가지 주제를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날 성모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시는 명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묵상에서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에 대한 봉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묵상에서는 그 봉헌을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단순한 것으로서 성모님과 함께 살고 성모님께서 우리를 변모시켜 주시기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매일같이 이렇게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여,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변모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묵상에서는 성모 성심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성모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운동에 대한 헌신으로서의 나머지 우리의 두 가지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황님과 그리고 교황님과 일치해 계시는 주교님들과의 일치입니다. 또 하나는 신자들로 하여금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왜 교황님과 일치할까? 우리 성모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일까? 파티마 발현에서도 이미 교황님과 연관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현시 속에서 교황님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교황님이 버림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방에서 교황님이 혼자서 울고 계셨는데, 그 방 밖에 서있는 사람들이 그 방으로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이 그 어린이들에게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아마도 오늘날 교황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사 2천년 동안 세계에서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것은 교황에 대한 도전이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서, 사제들에게서 그리고 때로는 주교님들에게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특징을 이루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교회로서는 가장 아픈 상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스런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의 또 하나의 헌신은 신자들이 성모님께 봉헌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전승을 가진 교회, 바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하나의 특징은 일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난 전 날 저녁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그것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참조, 요한 17장) (...) 베드로는 교회의 일치 또는 단일성의 초석입니다. 교황님이 바로 베드로의 그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위탁하신 사업을 계승하고 있는 교황님은 사랑 안에 교회를 주재하시고 교회 일치의 토대가 되십니다. 교황에 반대하는 세태에 의해서 교회가 내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주교들이 주교들에 대항하고, 추기경들이 추기경들과 서로 맞서고, 신부들이 신부들과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느님의 백성들은 혼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부는 지옥은 존재하고 천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다른 신부는 지옥은 없으며 천사들은 모두가 꾸며낸 전설이라도 말합니다. 교황님은 윤리적 지침을 내리십니다. (...) 목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 양떼들은 얼마나 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겠습니까? 성모님께서서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제들이 일치의 요소가 되어서 전체 교회의 일치의 기초가 되는 그 주변으로 모아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이 바로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과 일치와 합일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교황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오늘날 교황님은 사제들로부터 결코 사랑 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 성모님은 우리가 교황님께도 경의를 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교황님과 일치해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

오늘날 사제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순명의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실



## 우리가 성모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례는 받았지만 세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사제들에게 그들을 당신께로 이끌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목자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당신이 우리 곁에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불러주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도와서 신자들이 받은 세례를 생활화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를 피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성체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제가 성모님께 응답할 때 신자들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열 명의 사제가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천명의 신자들이 따라서 응답할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사제에게 도움을 줍니다. 기도와 격려 그리고 헌금으로써 말입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나오는 헌금도 또한 신자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목자가 그릇된 길을 간다고 할 때 양떼들은 그 길을 안 따라 옵니다. 오히려 뒤에서 목자를 밀어내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세워놓은 성모님의 계획은 순조롭게 달성될 것입니다. 교회는 쇠신되고 거룩한 성덕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잡다한 토론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제들에 의한 거룩한 생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 바오로가 예언한 그 시대입니다. 그는 복음 대신에 거짓 이야기들이 선포될 때가 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멀리하고 꾸며낸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성모님은 우리가 사제다운 사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복음을 복음으로서 선포할 수 있는 사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성심의 힘을 믿는 사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티 없으신 당신의 성심입니다. 그 성심 안에서 살아갑시다. 성모님의 성심이 우리를 변모시키도록 협조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성덕에 이를 것이고 소수의 사제들이지만, 그러나 성스러운 사제들과 더불어 성모님은 교회를 쇠신시킬 것이고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M**

천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명의 덕을 실천해 갈 때 교회의 일치는 쇠신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교님과도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교님과 일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주교님이 교황님과도 일치입니다. 공의회는 주교들의 공동선이라고 하고 주교들의 일체가 교황과 더불어 교황 아래에 위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교단은 교황님과 같은 카리스마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교님이 교황님 위에 앉고 싶어한다면,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교님보다는 교황님을 따라야 합니다. (...) 우리는 일치라는 이 헌신적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해서 힘써서 주교들이 교황님과 보조를 함께 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의 언어를 쓰는 교회로 돌아 갈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언어, 복음의 언어, 진리의 언어입니다.

또 하나의 헌신은 신자들이 성모님께 봉헌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는 세속화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가치와는 상반되는 가치관을 제시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신앙 생활에서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구별이 없어져서 세

## 그들의 절망을 밝히는 위로의 불빛이 될 수만 있다면...

성녀 켈커터의 마더 데레사



내가 하느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한 번 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요. 마음속에 쌓인 욕망의 먼지를 다 씻어내고 내 영혼이 비칠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때까지, 세속에 물든 생각들을 얼마나 떠나야 하는지요. 그리고 기꺼이 생명까지 내놓는 참 용기를 갖기 위해, 얼마나 순수한 영혼을 지켜야 하는지요. '나'라는 영욕을 한 줌 재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태워야 할까요. 살이 타는 고통, 뼈가 녹는 아픔을 기쁨의 극치로 맞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개의 빵, 육신을 눕힐 수 있는 자리, 몸에 걸칠 한 벌 옷을 나보다 더 궁핍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우주여행이 실현되는 인류의 찬란한 꿈이 21세기 앞에 펼쳐져 있지만, 아직 거리에는 한 개의 빵을 구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병고의 신음을 토해내는 죽음 앞에,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아픈 신음을, 고통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얀 손수건이 될 수는 없을까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 가서 기아에 허덕이는 굶주린 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만 할까요. 내 영욕이 그들의 양식이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 이들에게 한 모금의 물이 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이 몸을 내드리겠습니다. 과학 문명의 음지에서 생명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편의 시보다 파스한 손을 잡아주길 원하오니, 그가 가난하다면 그 가난을 내게 주시고, 그가 병자라면 그 병을 저에게 주십시오. 만약 나 병환자에게 입맞추어 그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 열심히 즐겁게 입맞추겠습니다. 내 영혼을 불태워 한줄기 빛을 만들어 그들의 절망을 밝히는 위로의 불빛이 될 수만 있다면, 내 육신을 활활 불태우고자 합니다. 인도의 거리 거리에서 구걸하는 굶주린 사

람들,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곁에서 편안히 잠 자리에 든다는 것, 한 조각의 빵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어찌면 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한때 꿈 많은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길가에 사람들의 시체가 군데군데 버려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눈을 커다랗게 뜨고 뚫어져라 쳐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나의 인생 행로는 교사의 길로 뻗어 있었지만, 이 순간부터 삶의 길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빛나던 꿈을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 그 절망과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절망에게 다가가서 희미한 사랑의 불빛이 될 수만 있다면... 생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가 될 수만 있다면... 그때 하느님은 저에게 맑은 눈물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뜨겁고 큰 용기가 솟구치는 눈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나는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가.' 나의 관심은 인류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주 시대와 과학 문명이 아닙니다. 참혹한 현실의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와 절망의 어둠 속에 가 있습니다. 나병환자들의 손을 마주 잡고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손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하얀 손을 제게 주십시오. 제 영혼의 뼈를 불태워 그것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 참 기도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노래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굶주린 자들을 위한 한 방울의 시원한 물이 될까요. 나의 기도는 목마르고 응답에 가슴이 탑니다. 타오르는 촛불의 그 맑은 눈물을 제게 주소서. 노벨 평화상보다 목마르지 않은 눈물을 주소서. 그 눈물이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샘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의 샘, 은총의 샘이 넘쳐 늘 저의 기도가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M**

(마더 테레사수녀의 어록에서)

## 성모님의 탄생에 지옥은 공포에 떨었다.

피에르 쥘리앙 에이마르 신부



### (제 4일 성모 마리아의 탄생...)

우리의 모후이시요,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모님의 탄생에 하늘은 환희로 넘쳐 있었고, 땅은 희망으로 가득했으며, 지옥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보라, 메시아의 어머니로 예정된 '권능의 여인'의 탄생을! 성모 마리아님의 탄생과 관련된 장소나 환경에 대한 기록이 성서에는 없을지라도, 성모님의 부모였던 성 요아킴과 성 안나의 가난하고 궁핍했던 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모님께서도 당신 아드님처럼 가난한 가운데 태어나셨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 요아킴과 성 안나는 레위 가문의 사람들로서 성전세(십일조)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모님은 이 세상의 어떤 유복한 딸들보다도 화려한 가문의 빛 속에서 행복하게 탄생하셨습니다.

1. 성모님은 세속적으로 존귀한 왕가의 후손이시며 유다 왕가의 딸이요, 형제요, 상속녀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당신의 모친이 왕가의 어머니로서 태어나

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세속적으로도 모든 왕권이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당신에게 있음을 보여 주고 모든 왕들이 당신을 그들의 영주요 통치권이 있는 지배자로 인정토록 하기 위해 왕의 형제가 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어머니는 모후가 되셔야 했습니다. 또한 당신의 성자께서 재산도 군대도 가진 것이 없는, 지상 왕국이 없는 왕이시었기에, 성모님도 가난해야 했고, 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속의 부귀와 권세는 왕권을 구성하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걸치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통치권을 인정 받지 못할 때일지라도, 그 권한은 여전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자의 왕권처럼, 성모님이 왕권이 선포되고 마땅히 공경받을 날이 올 것이고, 교회는 성모님께 하늘과 땅의 모후로서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살베 레지나!) 천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 마리아여, 주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옥좌를 성자께서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이 도래하기 전, 성자께서는 옥좌에 오르기 위하여 겸손과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 성모님의 마음에는 가장 뜨거운 사랑이, 성모님의 의지에서는 가장 완전한 신심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2. 성모님께서서는 천상의 온갖 존귀함을 지니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천상의 존귀함은 다만 하느님이 권능과 영광 속에서 당신 스스로와 결합을 이루신 피조물에 투영된 하느님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위대한 신비로써 성모님과 결합을 이루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성모님을 당신의 딸로서 부르셨고, 성자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로서 사랑하셨으며, 성령께서는 당신의 정배로 보호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신적 권능의 위대한 사업에 참여토록 예정되어 있었고 하느님 왕국 자체인 하느님 스스로와 결합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모님 탄생일에 그러한 성모님의 탄생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 요한과 함께, 우리는 태양을 입으시고 하느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느님의 거룩한 광휘로 찬연히 빛나는 성모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컨대, 성모님은 태양 빛을 투과하는 티없이 맑은 수정처럼, 하느님의 거룩한 빛으로 가득하십니다. 성모님이 달을 밟고 서 계신 것은 변덕스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성모님의 확고한 권능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한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옥의 용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왕관에 씌워진 열두개의 별은 선민들의 은총과 성덕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서는 천지만물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모님께 모든 구원을 맡기셨고, 또한 성모님은 당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성인들의 공경을 받으십니다.



습니다. 그러나 탄생하셨을 때, 이미 성모님은 스스로가 화려함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아홉달 동안 어머니의 몸 안에서 이미 끊임없이 조용하게 하느님께 조배를 드리면서 풍성한 성덕을 쌓으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성모님은 하느님의 거룩한 빛으로 가득하셨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은 당신이 쌓으신 성덕의 보배를 지니시고, 당신이 지으신 화려한 성덕의 옷을 입고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오! 우리가 성모님의 그러한 탄생을 볼 수 있다면, 하느님 사랑의 바다에서 떠오르는 이 태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성모님의 생각에는 가장 순결한

빛이, 성모님의 마음에는 가장 뜨거운 사랑이, 성모님의 의지에서는 가장 완전한 신심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피조물은 결코 없었습니다! 요람에서 자라는 동안에도, 성모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일체의 기쁨이요, 천사들의 찬탄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천사들은 "이같은 특권을 받을 자 누구이며, 생의 벽두부터 그렇게 풍요로운 덕을 지니고 영광과 찬양받을 자 누구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전투 대형을 갖춘 군대처럼 강력하게" 진군하는 성모님의 진군을 보며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두머리의 패배와 굴욕을 느끼고 있었고, 언젠가 이 어린아기가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될 무서운 싸움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구원할 해방자의 출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탄생은 구세주 탄생의 예고였습니다. 오, 참으로 기뻐할 일이로다. 이보다 더 기쁜일이 어디 또 있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가져다 주신 성모

### 성모님의 탄생은 구세주 탄생의 예고였다.

3. 성모님은 온갖 개인적인 존귀함을 지니고 태어나셨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가장 빼어난 은사들을 입으셨

## 우리에게 주시는 '살' 과 '피'의 그 본질이 성모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탄생하신 날부터 우리는 '성체' 의 극광이 되신 당신께 경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세주께서 사랑의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 과 '피'의 그 본질이 성모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 베로나 (Verona) 의 성베드로와 마니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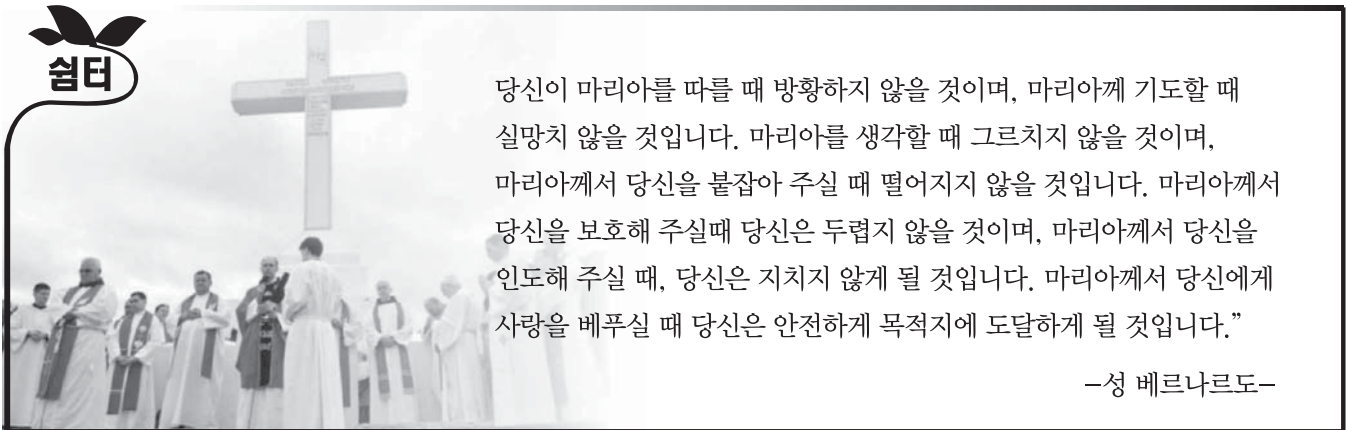
'밀란 (Milan)'에는 성베드로가 전도 여행중 찾았을 때, 늘 그를 환대했던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성베드로는 몹시 지쳐서 초췌한 모습으로 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성베드로를 무척 반갑게 맞이하며 존경을 표하던 그 부자가 웬일인지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변하게 만든것일까? 성베드로와 대화하던 중, 그 부자는 자신의 고충을 털어 놓았습니다. 얼마전 이교도인 한 마니교도가 그 부자를 찾아 왔었습니다. 마니교도는 그를 몹시 꾸짖으며 "진리의 원수 (성베드로)"에게 환대를 베풀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당신에게 진리를 보다 명확하게 말해주시길 '동정녀 마리아'를 당신이 만날 수있게 해주겠소." 호기심에 압도되었던 그 부자는 마니교도와 함께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하던 중에 품안에 아들을 안은 한 눈부신 여인이 제대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아들아, 너는 오류에 빠져있다. 너는 진리가 가톨릭 교도와 함께하지 않으며,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인 나는 너

에게 사실을 말해주고저 한다." 그말을 들은 후, 확신에 차서 그 부자는 불행하게도 마니교도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부자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성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찾아왔던 그 사람 (마니교도)에게 가서 말해 주시오. 그가 나에게도 '동정녀 마리아' 라는 여인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나 또한 마니교도가 될 것이라고." 그 부자는 곧 환대하여 맞아들였던 자신의 새 친구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베드로는 그 날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사를 드리면서, 그는 축성한 하나의 '성체'를 남긴 후, 그것을 성합에 담아 품속 깊숙히 감추었습니다. 성베드로는 무장을 하고 마니교도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갔습니다. 모임을 갖던 중, 회중의 중간에서 있던 사람은 한 눈부신 여인을 제대 앞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 모임을 처음 참석했던 성베드로에게 진리의 무지함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베드로는 '성체'를 높이 들고 발현한 여인에게 "만일 당신이 진실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라면, 여기에 계신 당신의 아드님께 경배를 드리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성베드로의 외침을 들은 유령은 강당에 역겨운 냄새를 가득 남긴채, 검은 연기속으로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Les Miracles historiques du Saint Sacrement.)

-성모님을 통해서, 미사의 희생 제물의 열매를 하느님께 바치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희생양'인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성모님을 찬미할 지어다! **M**

(성요셉 출판사: '성체와 성모 마리아'에서)



당신이 마리아를 따를 때 방황하지 않을 것이며, 마리아께 기도할 때 실망치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할 때 그르치지 않을 것이며, 마리아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실 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때 당신은 두렵지 않을 것이며, 마리아께서 당신을 인도해 주실 때, 당신은 지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당신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도-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이혼이 없는 마을 메주고리예

임마누엘 수녀

메주고리예에서 20마일쯤 떨어진 곳에 시로키-브리예그 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다. 그곳 본당 기록에 의하면, 13,000명 신자들 중 이혼한 부부가 한 쌍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헤르체고비나 지역은 하늘나라의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결혼식에는 어떤 비결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싸움과 분열을 조장하는 악령에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무슨 마법이라도 있다는 것일까?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이 땅의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외부의 잔인한 압력으로 고통 받아온 민족이다. 이 외부의 세력은 이들 민족으로부터 그리스도 신앙을 박탈하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말살하려했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그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유엔 평화 주둔군도 아니고, 비무장 조약도 아니며, 인도주의적인 원조도 아니요, 또는 유엔의 연설이나 평화조약은 더더욱 아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이따금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구원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헤르체고비나의 겸손한 국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교력을 갖고 있으며, 생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지혜를 보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원히 연관시켜왔다. 그들은 인간 생명의 원천인 결혼을 거룩한 생명의 원천인 십자가에 기반을 두었던 것이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특히 아름다운 혼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메주고리예에서 이를 보는 순례자들은 몹시 즐거워한다. 사실상 너무 아름답다보니 구라파나 미국 각처에서 이 혼례를 채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결혼 준비가 된 젊은 사람들을 보고, 당신은 이상적인 상대를 만났느니,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났느니 등의 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주례 사제가 그들에게 주는 말을 들어보자. "이제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이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만일 사제가 프랑스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남자 약혼자는 말문이 막혔겠지만, 헤르체고비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일깨워주며, 십자가상은 각 가정의 보물이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요조 신부님께서서는 순례자들에게 종종 이곳 사람들의 결혼식 이야기를 해준다. 결혼하게 될 남자 약혼자가 성당으로 혼배성사를 하러 갈 때에는, 십자가고상을 하나 가지고 간다. 혼배성사를 주관하는 사제가 그 고상을 축성해주며, 결혼 서약을 주고받는 동안 이 고상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신부가 그녀의 오른 손을 십자가 위에 얹으면, 신랑은 자신의 오른 손을 그녀 손위에 포개어 얹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서로 묶이고,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사제가 영대로 두 사람의 손을 덮으면, 두 사람은 교회의 예절에 따라 신의를 지키겠다는 약속과 서약을 한다. 서약이 끝나면, 두 사람이 서로 키스하는 대신 십자가에 친구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의 원천인 예수님께 입맞춤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합해진 신혼부부의 두 손을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만일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를 버리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곧,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셈이 된다!

혼배성사가 끝나면 신혼부부는 십자가고상을 집으로 가져와서 집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놓아둔다. 이 젊

은 신혼부부는 참으로 복된 가정은 십자가에 의해서만 잉태된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고상은 가정 기도의 중심이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은 이 십자가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한다. 그들은 변호사를 찾지도 않으며, 점쟁이를 찾아 손금이나 궁합을 보려하지도 않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학자나 상담원에게 의존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들은 곧장 십자가고상 앞으로 가서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아픈 마음을 다 털어놓는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서로를 용서해준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려고 갔고 또 그분만이 구하는 능력을 소유한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짐을 다 벗어버리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아이들에게도 매일 십자가에 키스를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잊지 않도록 가르친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언제나 존경받고 환영받는 자기네 가정의 특별하신 친구이시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담요 같은 것을 끌어안고 자는 대신, 예수님께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하며 십자가에 키스를 한다. 아이들은 꿈 인형과 함께 자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잔다. 아이들은, 예수님께서서 밤새도록 그들을 당신 품에 안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안다. 예수님께 키스를 하면 그들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M**

(엠미르 출판사: '메주고리에의 기적, 성심의 승리'에서 발췌-)





##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이들은 누구일까...

(2009년 메주고리에 발현 목격증인 미리야나와의 인터뷰 전문)

**미리야나 :** 먼저 성모송으로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모송...) 평화의 모후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한 질문에 답해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메주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번째는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제자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어떤 질문이라도 해 주십시오.

**질문 :**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다른곳의 발현에 대해 말씀하신적이 있으신가요?

**미리야나 :** 오직 파티마의 발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티마에서 시작한 일을 메주고리에서 완성할 것이다. 나의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저도 모릅니다.

**질문 :** 어제 메시지는 매우 슬프고 심각했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리야나 :** 성모님의 메시지가 매우 슬펐습니다. 여러분이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의 표정을 직접 보지 않으신게 다행입니다. 보셨다면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메시지 하나 하나를 통해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꽃다발처럼 묶어 예수님에게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메시지를 이해하지도, 받아 들이지도 못한다고 느끼실때 마다 성모님의 표정은 어제처럼 매우 슬프시답니다. 메시지는 여러분이 받는 것 그대로 저도 받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을 덧붙이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도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내용을 묵상합니다. 저는 어제 사람들과 함께 성모님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세상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변화할 지를 궁금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잘못을 했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구요.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은 쉽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부터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다고 말씀하셨죠?

**미리야나 :** 네, 성모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실때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고통이 가득 찬 매우 슬픈 표정이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미리야나 :** 성모님께서 저에게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이들은 누구일까...생각했을 때, 성모님께서서는 교회를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늘 미사가 첫 번째이고, 다음이 성체, 고백성사 등등 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톨릭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되풀이 할 뿐입니다. 이세상에서 우리가 영원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만나는 개개인에게서 예수님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진실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참 평화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우리가 이웃에게 참다운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야나 :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것은 사제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제를 가르키며 웃음) 성모님은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나구요? 작은 예를 말해드리죠. 제가 메주고리에 저녁미사에 참석했을 때,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저는 그때 등이 몹시 아팠습니다. 제가 벤치에 좁은 자리를 발견하곤 그곳에 앉자 이태리에서 온 순례자들이 저에게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건 내 자리요. 우리가 먼저 왔단 말이오." 제가 조용히 일어서자 지나가던 한 여인이 저를 알아보고 벤치전부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구요? 만일 믿지 않는 이가 처음으로 가톨릭 성당에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성당에 올까요? 그 일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가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직 사랑. 그것만이 모든 대답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만나는 개개인에게서 예수님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진실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질문 : 성모님께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적이 있나요?

미리야나 : 신부님께 여쭙 봐야 하는 질문이네요. 저는 단순한 증인일뿐입니다. 그리고 전 오직 성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외 것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질문 :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는 이기적이지 않나요?

미리야나 :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이 하느님 뜻 안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 뜻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것이 무엇인지 하느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니까요.

질문 :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라 변화하려고 할때 우리를 괴롭히는 의심은 어떻게 할까요?

미리야나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항상 좀 더 잘 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기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저는 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자신을 평가하기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도와 주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도가 대단하게 여겨질 때가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손을 내미시어 우리를 올려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열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질문 : 저는 묵주기도할 때 힘들고 분심이 들곤 합니다. 당신은 언제 묵주기도를 하며 내용을 묵상하나요?

미리야나 :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의미를 기도가 먼저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입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총이 '가득하신...' 하고 말할때 성모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시는가를 느끼고 '마리아님' 이라고 말할 때는 마음을 다해 성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성모송을 드릴때마다 항상 새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결코 반복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성모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할 때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성모님께 어떤 마음이 신지를 여쭙면서 대화를 합니다. 성모님을 직접 뵈거나 듣지 못한다 해도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도 분심이 들면 묵주를 내려놓고 왜 그런지, 무엇이 짐이 되고 있는지, 왜 침묵할 수 없는지를 성모님과 대화하며 말씀드리고 기도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더라도 성모님께 말씀

## "어떻게 성모님께서는 그토록 아름다우신가요?"

성모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사랑 하기때문에 아름다운거란다."

드리고 의탁하세요.

질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불리웠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야나 : (웃음)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성모님 뜻을 알고자 해가 지도록 말해도 아마 끝이 안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름 받았지만, 소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 하셨듯이 각자의 의견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성모님의 부르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중 진심으로 응답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질문 : 성모님께서 지금이 은총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미리야나 : 지금이 은총의 시간이 아닌가요? 그토록 오랜 기간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요?

질문 : 본인 혹은 다른 목격증인들 중 한번이라도 교황님을 뵈적이 있나요?

미리야나 : 저는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님을 뵈었습니다. 이태리 신부님과 있었는데, 교황님께서 순례자들을 강복하시는 중에 저를 축복해 주시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같이 계신 신부님께서 "교황님, 이분은 메주고리에의 목격증인 미리야나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교황님께서 돌아오셔서 저를 다시 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부님께 말씀드렸죠, 아마도 교황님께서 제가 두번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것 같다고 (웃음). 그날 오후에 우리는 다음날 로마근처에 있는 '카스텔 곤돌포'로 가라는 소식을 받고 신부님과 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에에 있는 일들을 모두 믿습니다. 순례자들에게 제 지향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메주고리에를 지켜 주세요. 왜냐하면 메주고리에에는 온세상을 위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황님께서 처음 부터 메주고리에를

매우 좋아 하셨는데, 그이유는 발현이 시작되기 두달전부터 성모님께 이 세상에 다시 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황님께서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유고슬로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등 공산주의 국가들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 하셨답니다. 후에 공산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마을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셨답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은 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미리야나 : 성모님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다른곳에서 보실 수 있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으로 부터 비추어지는 어떤 빛입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성모님께서는 그토록 아름다우신가요?" 성모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사랑 하기때문에 아름다운거란다.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아름다워지길 원한다면, 사랑하여라." 성모님의 발현이 끝난 후, 당시, 겨우 아홉살 반이었던 야콥이 말했습니다. "나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넌 감히 천상의 어머니께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할수있어?" 라고 했죠. 야콥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을 봐, 우리는 끝까지 사랑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아름다워질 순 없다는거야." 어린 야콥은 성모님께서 어떤 의미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 하신것인지를 이해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질문 : 성모님께서 발현 하시기 전에, 꿈이나 혹은 다른 느낌들이 있습니까?

미리야나 : 저는 단 한번도 성모님 꿈을 꾀 본적이 없습니다. 주로 낮에 재미있었던 일들에 관해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항상 발현 전날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길만이 제가 평화를 얻고 다음날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건 생각할 수조차 없고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엄마이지만, 두 딸아이를 위해 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제 딸들이 존

##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아름다워지길 원한다면, 사랑하여라."

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제 소망은 성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모님께서 떠나실때 제가 겪는 고통이 어떤것인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연필과 펜을 손에 쥌 수있는 힘조차 없어서 "미키를 위해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적고나면, 저는 곧바로 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한 시간, 두시간, 세시간이고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 갈 힘을 주십니다.

**질문 :** 당신이 말하는 기도는 묵주기도인가요? 혹은 대화를 말씀하십니까?

**미리야나 :** 묵주기도, 일곱번의 주의 기도, 대화, 하지만 저는 항상 안토니오 성인의 묵주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의 가장 가까운 성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안토니오 성인은 여러분이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성인입니다. (웃음) "저를 위해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 대신

저것을 하겠습니다..." 라고요

**질문 :** 당신은 왜 수녀가 되지 않으셨나요?

**미리야나 :**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 보더군요. 발현 초기때, 성모님께 물어 봤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란다. 만일 너희가 사제나 수녀가 되길 원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도와 주겠다. 그리고 가정을 갖기를 원한다면, 다른 가정들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 주겠다." 그것이 성모님께서 저희 목격증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전부입니다. 루르드의 성녀 벨라멧타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녀는 수녀가 되기 원하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강요했죠. 그러나 우린 그때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강요받지 않습니다.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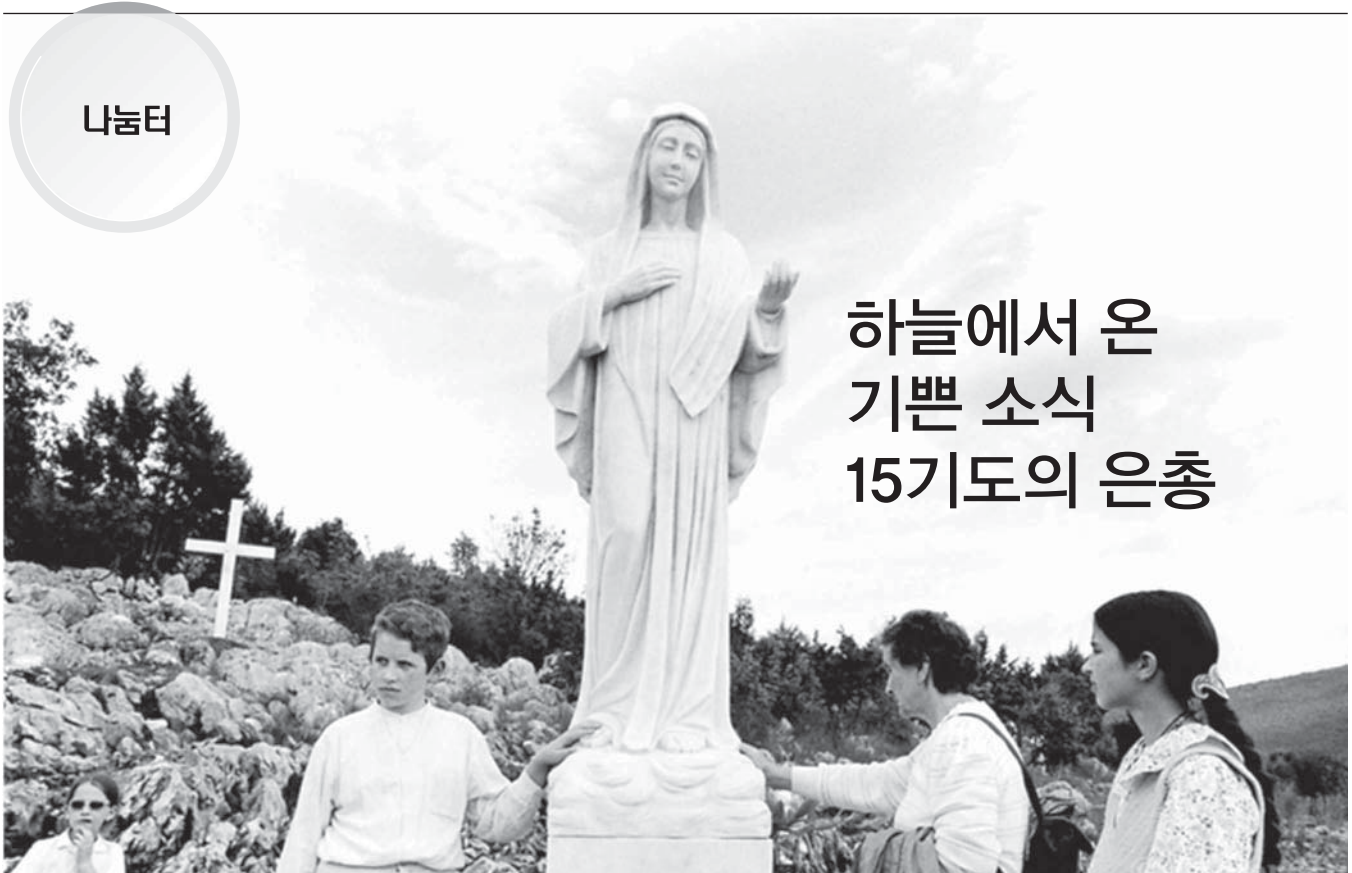
(다음 70호에는 '이혼'에 대한 인터뷰가 기재됩니다.)

###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이유는, 지금은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사명, 즉 '선'이 승리하도록 너희를 도와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내 아들 예수님이 내 곁에서 자라면서 나에게 말해주신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나는 내아들을 믿고 따랐다. 나는 너희들도 나를 믿고 따라 주기를 청한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아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다는 것이며,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이 다시한번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기도와 단식을 하라고 초대한다. 성체가 너희 영혼의 생명이 되게하라고 청한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나의 빛의 사도가 되어 달라고 부르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너희들의 삶은 아주 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아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분께서는 너희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지를 보실 것이다. 나는 너희가 올바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분과 일치하고, 너희들의 일치, 너희와 너희 목자들 사이에 일치를 위한 은총을 내 아들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 내 아들 예수님은 너희들의 목자들을 통해 항상 당신을 내어 주시며, 너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다오. 고맙다.

2014년 8월 2일 성모님의 메시지

발현 목격증인 미리야나



## 하늘에서 온 기쁜 소식 15기도의 은총

김호영 아브라함

작년 12월 돌아가신 아버님을 주님께 맡겨 드리고 다시 도미한지 5개월이 조금 지난 어느날, 여느 때 처럼 고국에 계신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막내야, 나 어제 밤 꿈에 네 아버지를 만났단다." "아! 어머니, 그래요?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글쎄,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생시 처럼 똑똑히 들리더라." "네~, 아버님이 무어라 말씀하셨는데요?" "응, 네 아버지가 '여보, 여기가 세상에 살던 때 보다 몇 배는 더 좋아' 하시길래, 내가 '아니 당신은 평소에 돈이 좀 궁해서 불편했지만 평생을 그리 큰 고생 없이 사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지 않았겠니..." "예, 그러셨더니요?" "아버지가 다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래도 여기가 훨씬 더 좋아' 하시더구나. 그런데 너무나 생시 처럼 꿈을 꾸어서 바로 너한테 전화 하는 거란다." 전화 받는 도중에 벌써 제 두눈은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에 젖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스웨덴의 성녀 버리짓다를 통하여 저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음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경 부모님께서 형제들 중에 홀로 미국에 사는

저를 보시러 오셨을 때,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당시 본당 신부님의 배려로 길지 않았던 체류일정 중에 속성으로 영세를 받으시고 귀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과 이유로 신자로서 열심한 신앙 생활을 하시지 못하였고, 급기야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신부님께 병자성사도 못하시고 돌아 가시게 되어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선종하신 후에 귀국하여 이미 누워계신 아버님께 하늘나라에서 다시 뵙날을 기약하며, 목주와 스카폴라를 목에 걸어 드렸습니다. 이땅에서는 아버님을 다시 뵙 수 없지만 제 가슴에는 슬픔은 없고 흔들리지 않는 담담함과 편안함 그리고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저는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부터 회개의 길을 걷던 제게 어느날, 버리짓다 성녀의 예수님 수난 15기도가 찾아 왔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21 가지의 놀라운 약속된 은총들 중에 저의 마음을 가장 사로 잡은 한가지는, 1년을 매일 같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의 혈통 중에

## 그 영혼은 연옥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고...

열 다섯명의 영혼을 연옥에서 구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앙을 모르고 살다 돌아가신 수 많은 저의 조상들과 친지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은 선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터 바로 15기도를 시작하였고,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총중에 저를 묶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난 중에 총 5,475대의 매를 맞으셨는데, 하루에 15대씩 맞으신 매로 인한 예수님의 온 몸에 난 상처를 묵상하면서 위로해 드리면 1년(365일)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사랑의 상처에 저희도 동참하게 되는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기도를 통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버님을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별 때 인간적인 슬픔을 제 가슴에서 밀어 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에 머물게 되지만, 한 영혼이 죽어 연옥에서 정화되는 기간이 이 세상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40년 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정확히 언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 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길게 잡아도 반년이니 그 평균 기간 보다 무려 80배는 빨리 올라 하늘나라에 가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5기도를 시작한지 2년 쯤 후에, 같은 기도책에 있던 비리짓다 성녀의 12년 기도도 이왕이면 함께 하자라는 마음이 들어 시작했는데, 그 때는 몰랐던 더 놀라운 은총의 샘을 팔년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만약 예수님의 성혈을 공경하기 위해 이 기도를 12년 동안 매일 같이 바치면 ...

1. 그 영혼은 연옥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고,
2. 그 영혼이 믿음을 위해 피 흘린 것 처럼 여겨져 순교자들(Martyrs) 사이에 받아 드려질 것이고,
3. 그 영혼이 선택한 세명의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되기에 충분한 은총 속에 보호하실 것이며,
4. 그 영혼의 4대 후손들 까지 아무도 잃어버릴 영혼이 없을 것이며,
5. 그 영혼은 자기 죽음을 맞이하기 한달 전에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영혼이 이 기도를 시작하고서 12년이 되기 전에 죽는다면, 그 영혼의 의도가 다 마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를 전부 다 한것으로 받아 주십니다. 또한 하루나 몇번을 합당한 이유로 인해 기도를 빠뜨린 경우에도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보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이 15기도에 담겨 있는 무한한 은총의 가치를 다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한 형제 자매라도 더 이 기도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응답하는 마음으로 저의 체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917년 파티마 성모님께서 발현 하시기 얼마전, 그 마을에서 죽은 17살 여자 아이는 이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서 단련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연옥에 대한 책을 쓴 마리아 심마는 지금은 성인이 되신 파드레 비오 신부님도 잠시 동안 연옥을 거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심마는 연옥은 상황이며, 장소이고 또한 시간이라 전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같은 시간이겠지만, 하느님의 무한한 좋으심을 이미 빠져리게 알아 버렸으나 함께 할 수 없는 그 연옥 영혼들에게는 단 한 순간이라도 얼마나 큰 고통일런지요?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M**



나눔터

전능하신 하느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창호 바오로

형제 자매 여러분, 한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지난 11월 초에 신부님과 성당일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에 11월 14일 평신도 주일엔 사목회장으로써 강론을 맡으라 하셔서 순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본당엔 신앙심이 깊고 훌륭한 원로분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자리에 선 것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일주일 동안 강론준비를 하면서 평일미사와 주일미사, 피정 등, 늘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시는 신부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30일 부터 9일 동안 메주고리예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게된 동기와 체험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성당의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 계획은 6월초 부터 주보에 실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매주일 보면서도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9일씩 빠지면서 순례여행을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첫금요일,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주말의 약간 들뜬 기분으로 일하고 있을 때 오전 11시경 직장 상사가 불려서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하여 입사한지 6개월이 채 안되었을 때였습니다. 120명의 컴퓨터 인력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맡아서 해야 할 프로젝트가 취소 되었다면서, 지금부터 2주간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니 다른 직장을 찾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20여년동안 컴퓨터 일을 해오고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기운이 완전히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회사를 나왔지만 이 일을 집에 가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낮에 집에 도착하니 방학중인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던 아내가 퇴근시간이 아닌때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제 모습을 보고 의아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요즘같이 컴퓨터 인력이 부족한 때에 무슨 걱정이냐며 저를 위로하였습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침착해 보였으나 한편 걱정하는 모습은 역력했습니다. 그 후 새 직장을 찾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회사로 이력서를 보냈고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인근에 있는 성당의 평일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2000년을 앞두고 컴퓨터 인력의 부족으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직장을

##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로 저를 초대하고 계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옮겨보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받은 했는데, 이번에는 이력서를 보낸지가 열흘이 되도록 신기할 정도로 단 한군데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저를 그만두게한 회사에 대해 인종차별이라는 미움이 들어 소송을 제기하려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미 평정을 잃었고 평화는 깨어져 있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까운 미국 신부님께 저의 현재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신앙인으로써 이 일을 해도 되는지를 여쭙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일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면담을 마친 후, 성당안의 성모님 앞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과연 직장인으로써 본분을 충실히 하였는가, 주님 앞에서 조용히 저의 행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당일 한다며 자주 한국말로 사적인 전화를 했던 일, 손님 신부님 점심 접대한다고 오후 일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일, 이민 1세로써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컴퓨터 전문인으로 미국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교만한 자부심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무분별과 나태함 그리고 교만함을 깊이 통회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려 했던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 직장을 잃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통회는 제게 다시 평화로 찾아 왔고, 제 앞에서 계신 성모님께서 저를 메주고리예로 부르시고 계심을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상황이 어떠하든 전격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 2주일 분의 급여를 받은 그 기간이 지나고 집에 있게 된 8월 셋째주 월요일이 되었는데, 그만 둔 회사로부터 1주일 분의 봉급에 해당하는 수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남아있던 휴가 보상비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평소에는 무감각하던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틀뒤인 수요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후 3시에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자비의 기도를 바친 후에 어쩔 수 없는 초조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 이

번에도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분명히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라고 열렬한 기도를 드린 불과 30분도 채 안되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컴퓨터 전문직 종사자들을 회사에 소개 시켜주는 한 소개소였는데, 어떤 회사에서 저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으니 그 회사와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면접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면접시험 보러 가는 차안에서 마침 3시가 되어 자비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면접시험은 약 두시간 동안 네 사람과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직장이 없었던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담대한 태도로 지난번 직장보다 연봉을 더 높게 요구하는 한편 그것외에 한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톨릭 신자이며, 이미 메주고리예 성지 순례 계획을 잡아 놓았으니 만일 저를 채용하게 되면 9월 말 부터 9일간 휴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책임자가 자기도 가톨릭 신자인데 메주고리예에 대하여 들어본적이 없다고 하여 성모님의 발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고 성당으로 돌아와 그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사흘간의 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온 연락은 저를 즉시 채용하기로 했으며 제가 원하던 분야에 연봉도 요구한 대로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 휴가지만 열흘간 성지 순례를 다녀오도록 허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펴듯한 기쁨으로 감사기도를 드리며 다시한번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로 저를 초대하고 계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9월 1일부터 새 직장에서의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9월 말에는 꿈처럼 순례여행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메주고리예에 도착한 후, 작은 마을의 평범한 풍경을 보며 무엇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그만 마을로 몰려드는 것일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 해가 빙글빙글 돌고 하늘에서 성체모양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저도 가끔 태양을 바라보곤 하였으나 별 다른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일정대로 지내면서 그곳 주민들의 맑은 눈과 착한 마음, 어디서나 묵주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감명받으며 성모님께서 그곳을 택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 지금 겪고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지낸지 5일째 되던 화요일 저녁 6시, 크로아티아어로 진행되는 미사에 참례했는데, 저는 제대앞 대리석에 자리했었습니다. 미사를 시작하자마자 정말 아주 진한 장미꽃 향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현존하시는 성모님의 사랑에 젖어든 제 두 뺨에는 한없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미 꽃 향기는 미사가 끝날때 까지 계속 되었고 저는 난생처음 느껴보는 깊은 감동으로 미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와 같은 숙소에 머물고 있던 열한명중 한 자매님이 오전에는 한국어 미사를 드렸으니 저녁미사에 참석하지 말고 십자가 산에 올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자고 제의를 하셔서 일행 열한명은 십자가 산으로 갑니다. 1처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전날 밤 미사에서 말았던 그 진한 장미꽃 향기가 다시 저의 코를 진동하시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 후라서 날씨는 약간 선선했고 산에는 바람이 조금 세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향내는 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처에서 나기 시작한 향기는 약 5 미터 거리가 되는 2처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걸어 가는 동안에는 나지 않았고 2처에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다시 아주 진한 장미꽃 향기가 나곤 하였습니다. 2처에서 3처로 4처로 ... 그곳의 15처 예수 부활상까지 갈 동안 그 향기는 자리를 옮겨 가면서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 일행 모두는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기도를 하고 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평화의 인사를 뜨겁게 나누면서 주안에서 서로 한 형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마치 동화처럼 아름다운 쌍 무지개가 떠있었습니다. 평화의 기쁨으로 일행은 십자가 산을 내려오면서 묵주 기도의 영광의 신비를 하었는데 5단을 마치니 1처가 있는 산 아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진한 장미꽃 향기가 아주 넓게 사방에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그 어떤 표적이거나 기적을 본것보다도 훨씬 귀중한 성모님을 체험하고 돌아왔으며, 태양이 빙빙 돌고 성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자 했던 나의 바람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지순례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월요일 회사에 출근하여 보니 책상위에 봉급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평소와 다름이 없어 무엇인가 잘

못되었음을 상사에게 말씀드리니, 인사과와 상의하여 처음의 결정과 달리 열흘간의 무급 휴가를 유급으로 전액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성모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위하여 직장을 잃게 하시고 저 자신의 교만을 누우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셨고 물질도 더욱 풍성히 채워 주심을 말입니다.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는 피조물 로써 오로지 주님께서 저를 쓰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릴 뿐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여정에는 갖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겪고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허전하고 무엇인가를 갈급하는 마음, 그것은 더욱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으로 그분께 백기를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것입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성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도우심에 감사 드리며 우리의 힘이신 창조주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28절로 저의 체험담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M**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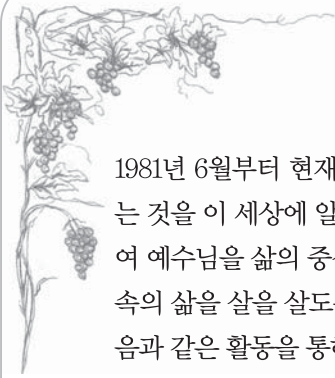
[www.qpmm.org](http://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mailto:qpmm.org@gmail.com)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 박창득 몬시뇰  
 지도신부 : 박창득 몬시뇰 (뉴욕대교구)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웹관리자 : 박 어거스틴  
 편집위원 : 남 미카엘라, 김성주, 박 소화 데레사, 최 레지나

미 국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Tel : (201) 945-4777 / CP & 카톡 (917) 626-4314

한 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Tel. 010-5713-2333

카 나 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메주고리에에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수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기도, 회개, 믿음, 보속의 삶을 살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설립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성모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 | 4.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을 위한 활동   |
| 2. 신앙 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안내    | 5. 메주고리에 및 성모신심 관련 서적 출판     |
| 3.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6. 메주고리에와 성모 신심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과 무료 보급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는 가톨릭 비영리단체인 선교회의 사명에 동참해주시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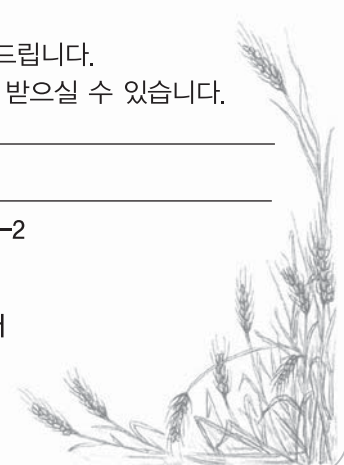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2. 선교회의 신부님들께서 회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3. 매월 첫토요일 성모 신심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때 회원들과 가정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4.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미사와 기도지향들은 성모님의 발현 목격증인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5. 선교회로 친지와 가족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6. 모든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한 사명에 사용되며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미국·카나다**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 : 201-945-4777 CP/카톡 917-626-4314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WELLS FARGO  
 송금번호: ABA# ( 031201467 )  
 Acct.# ( 2000012394184 )

**대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 : 010-8633-3540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센터  
 은행 : 농협은행  
 계좌 : 351-0404-6506-03

E-mail: [qpmm.org@gmail.com](mailto:qpmm.org@gmail.com) / 홈페이지 [www.qpmm.org](http://www.qpmm.org)



##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신청서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CP) : \_\_\_\_\_ E-mail : \_\_\_\_\_

## 69호 소식지 발행을 위해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과 봉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영애, 강제이슨, 강현정, 강로사, 강복선, 강성주, 구옥림, 권오진, 김수정, 김진일, 김순옥, 김옥순, 김요안나, 김사비나, 김정자, 김경애, 김순홍, 김현숙, 김효정, 김희영, 김숙자, 김영희, 김세리, 김훈, 김금성, 김경숙, 김종순, 정금희, 김혜경, 김마리아, 김순옥, 김수정, 김옥순, 김효안, 김영주, 김테이비드, 김원희, 김주, 김정원, 김마텔라, 김순미, 김혜경, 김단심, 김동순, 김순미, 김소영, 김안나, 김마드레아, 김호영, 남궁리디아, 노마리아, 민헬레나, 권젼마, 금옥, 문로사리아, 민금이, 민병돈, 민정숙, 명주리, 박경희, 백민현, 박경희, 박종옥, 박마리아, 박경희, 박경, 박마리아, 백낙현, 백민현, 반닉기도회, 신혜경, 성혜경, 송안나, 서석레, 서영희, 신베드로, 서영희, 신현필, 석순옥, 선우용근, 선우유식, 서젤마, 서정열, 신데레사, 신경자, 신영수, 송영희, 신은희, 신태남, 송혜자, 심세실리아, 성정숙, 송경섭, 이기선, 이루시아, 이연희, 이윤영, 이영희, 이은숙, 이안토니, 이수지, 이은, 이택, 이민희, 이마리아, 이미나, 이명진, 이창, 이정진, 이동숙, 이연희, 이복련, 이관희, 원옥순, 이연기, 이준세, 양루시아, 이찬기, 이송주, 이성숙, 이선우, 유베로니카, 유요한, 유광문, 이현구, 이루시아, 이경, 이정은, 이희운, 이혜숙, 이복희, 이정, 이동우, 이송주, 이복희, 이동우, 이종천, 이유미, 이인순, 이영자, 이명자, 이송자, 이명숙, 이연희, 엄토마스, 안은순, 양태숙, 엄봉화, 엄용숙, 임주자, 원옥순, 안마이클, 임요안나, 전현숙, 진도미니카, 조안나, 조동진, 조창길, 조크리스티나, 조숙자, 진은필, 최희순, 최선, 최미카엘라, 최마르셀리나, 최영운, 최혜선, 최선, 최지희, 최아지, 차순구, 잔스윤숙, 장종순, 전현숙, 정심디언, 정토마스, 정안나, 장종순, 주남필, 정찬래, 전현숙, 정애나, 정금희, 주정숙, 주숙은, 조아일린, 조화연, 전금순, 조크리스티나, 정요한, 정금희, 정글라라, 장봉석, 정옥순, 정재향, 정지원, 장한순, 주옥림, 강민정, 정환철, 정요한, 황은경, 홍연, 홍성심, 홍수원, 황헬렌, 황계자, 홍주필, 홍성심, 홍제시카, 황대운, 홍연수, 한미경, 한승용, 한숙희, 한숙희, 한정애, 한옥림, 한숙희, 희숙, 윤희, 엄태순, 한옥림, 한혜숙, 한숙희, 한승용, 하정철, 홍마리아, 리사 레지나, 권선화, 전찬래, 익명, 벤쿠버 성대건 안드레아 성당 평화의 기도회,

Anna Chung, Annie Felix, Agather Phillips, Andrew Lee, Consaleia Taphorn, Chong S Arguello, Barbara Alonzo, Charles J. Ernst, Chwi Vwga, Chong Ae Lake, Yun suk Johns, Susie Lee, Joo, Nam P, Suok, Sunok, Sang S Goode, Chung Shendelman, Jung Iwasaki, Joung Lee, Jung Iwasaki, Jeannie Cunningham, Kim Madera, Kyung Park, Kyung Larcenaire, Myung Wan Park, Madera Kim, Ok Soon Nguyen, Myung Suk Lau, Paul J & Mary K Lee, Joung Lee, Yun Hui Beech, Ok soon nguyen, joe & son cha allen, Kang Mee R, Goldland Jewelers, Sara Garcia, Golden Jewelers, Young S. Sin, Nansoon S. Buffington, Myung D. Yerger, shendeman, Henry Yer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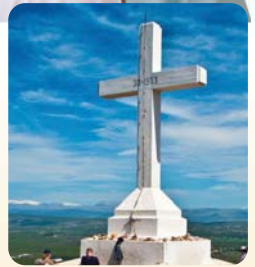
##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01년부터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는 "평화의 모후"소식지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료로 보급되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는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으로 발행되어 그동안 미주 전 지역과 한국, 캐나다 및 유럽 등지에 성모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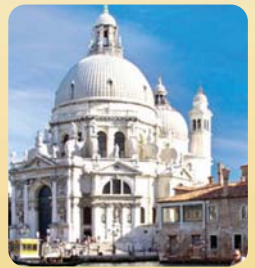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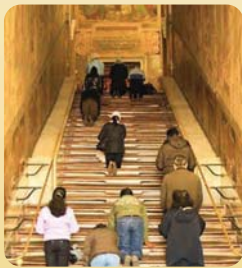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관 2014년 성지순례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크로아티아,  
발칸반도, 파티마, 프라하, 이태리, 로마**

2014년 10월 3일 ~ 18일 (15박16일)

뉴욕 공항 (EWR) \$3,750



■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2014년 10월 6일 ~ 14일 (8박 9일)  
뉴욕(EWR) \$2,180

■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2015년 3월 6일~14일 (8박 9일)  
뉴욕공항 (NYC) \$2,180



성지순례 문의처

201-945-4777 / CP, 카톡 917-626-4314 / E-mail : qpmm.org@gmail.com

자세한 성지순례 일정은 홈페이지 [www.qpmm.org](http://www.qpmm.org) 에 순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